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韓國生藥協會
社團 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3월 31일 발행분 3면
- 4월 30일 발행분 4면
- 5월 31일 발행분 5면
- 6월 30일 발행분 6면

품질을 가격 실정에 우선시함

생약협회 관계부처에 진정 규격화 전면 재검토 촉구

규격화 4월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규격화 고시(안)의 철회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회화적 방법의 이해를 위한 원투본 이용된 진정서를 보건복지부와 청문대의 제출했다. 협회는 진정서를 통해 「품가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한약재는 원투본 등의 하위급만 거쳐 가공한 한약재가 제조업소를 거쳐 나온 것과 형태, 성분, 또는 품질상의 차이가 없음을 입증하고, 생산차(단체) 지정하고, 생산차(단체)도 규격에 맞지 않는 한약재 제조시 규격품으로 인정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규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포장의 규격 이전 품질의 규격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수입한재 또는 국내산 약재가 그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수입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수입자의 품질관리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중금속·농약잔류 허용기준치 설정 및 수직형 등 법제를 해야 하는 한약재 우선 규격품대 상 한약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동한약사가 국제시장으로 발돋움

외국여행자들 직접 찾아와 약재구입



◇국제최대 전문상가로 자리잡은 경동한약시장.

서울 제기동 경동한약사가 국제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동한약사는 80년대부터 「한·중·일·미·영·일·일」 등 7개 대륙에서 생산된 약재가 교역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위에 자연스럽게 진출되면서 한약재 유통하는 업소들이 하나둘씩 모여 들었다. 이후 70년대부터는 전국으로 유명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고, 한약재 관련 유망시장까지 포괄하면 7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전문상가로 자리잡았다.

30여년의 긴 전통을 자랑하는 한약사가 역사적으로 불우하고 세계 최대의 한약도시인 안국(安國市)에 버금가는 곳으로 급상승한 것이다. 상가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한약재의 수출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례로 대만·홍콩 등지로 각종 약재가 수출되고 있다. 또한 이곳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이 직접 찾아와 약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한약사가 번영의 근간이 되는 한약재의 유통량의 70%를 담당하면서 일반적 인 전문상가의 특색처럼 산지출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유통단가가 줄어드는 만큼 시중보다 20~30% 정도 싸다고 이곳 상인들이 자랑한다.

이곳에서 취급되고 있는 한약재는 재배약재를 비롯 자연산약재 수입약재 등 4백여종의 약재로 구성되어 생산된 약재들이 일단 이곳에 진출하면 누구나 손쉽게 대외의 한약재 수요를 비롯 전국 각지로 다시 팔려나간다. 경동한약사는 앞으로 경쟁 동등과 시장이 구미시로 이전하는 99년에는 이곳까지 상권을 확대해 국제적인 한약사가로 발돋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삼농약잔류기준선포

허용치 초과 전량 폐기

원료의약품 제조업소를 통째서만 규격품을 유통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약초농사는 UR 대비 격화되는 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생산농가들의 생산위축은 물론 한약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2ppm까지 설정했으며 수삼은 건조 인삼의 2배까지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또 인삼농약 제품의 잔류허용기준은 건조 인삼에서 설정된 기준치의 25%로 설정, 인체유해 여부를 가늠하도록 했다. 이번의 허용기준의 설정은 「농약관리법」 제49조에서 지난 6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DDT, BHC, 알릴린, 디알릴린, 엔트린 등 5종이다.

오염된 우려가 있는 DDT 등 모두 19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치를 설정한 인삼 및 인삼제품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입안 예고했다. 잔류허용기준을 보면 건조 인삼의 경우 ▲ DDT 0.1ppm에서

“우리생약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뿌리 뽑힌 삶이 행복할 수 없듯이 우선 농촌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약 살리기는 우리의 터전을 지키자는 농촌살리기 운동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원일동

주 소: 서울·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전 화: 967-8133, 969-6875
FAX: 965-0643